

양질의 교육과 ‘발전교육’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국제교육개발협력과 SDGs 네 번째 목표

교육은 국제사회 발전 수준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는 ‘변화’라는 희망 섞인 바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할 때, 그 바꾼다는 수준이 정말 바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교육을 강조하는 의미가 참 퇴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져 왔던 수많은 논의와 연구들은 교육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예,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힘과 의지 혹은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학교가 존재하며,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활동이 존재합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건 현실을 위한 것이건, 교육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교육이 지닌 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SDGs의 네 번째 항목에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일하는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여기에 왜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SDGs 네 번째 목표는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 촉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양질의 교육 그리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이를 건지에 대한 주요한 목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 4.2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 교육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유아의 발달,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영유아교육)
 - 4.3 -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직업교육, 대학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 4.4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직업기술훈련, 진로교육, 기술교육)
 - 4.5 -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
 - 4.6 -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문해교육, 성인기초교육, 평생교육)
 - 4.7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지속가능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 4.a -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환경, 교육시설)
 - 4.b -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학금)
 - 4.c -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교사교육, 교사훈련 등)

SDGs에서 추구하려는 교육목표를 이야기하는 큰 틀은 5가지의 접근이 균형 있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적인 접근임

니다. 요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혹은 ‘교육이 크게 전환돼야 한다’ 등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이 내놓는 수사법적 논의가 바로 생태적 교육으로, 교육생태계가 아닌 생태적 교육시스템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접근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문화들을 반영하고 그 문화가 성찰될 수 있어야 합니다. SDGs의 목표와 접근들도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접근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지게 된 첫 번째 계기도 바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는 즉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은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접근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에 어떤 어긋난다면 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내용도 교육의 다양한 접근들로 취해집니다.

SDGs 교육 개발의 목표는 사실 2015년도까지 있었던 MDGs에서 성취되지 못한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M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8개의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그중 두 번째 목표가 초등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목표를 위해 6개의 하위 목표들이 있었지만 SDGs만큼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심층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SDGs는 이렇게 MDGs가 성취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성과에 기반한 교육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을 위한 큰 담론에 연계해서 기술 발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SDGs 7개의 목표 중 3개가 기술 발전 즉, 직업 기술 훈련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만큼 SDGs에서 교육이 경제성장 혹은 한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발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교육과 발전이 서로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발전을 위한 교육이란 관점만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교육의 양면성과 교육과 발전의 관계

제가 학부에 입학한 첫 학기에 교육학개론 수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교육이 뭐지?’라는 질문을 16주 동안 따지듯이 물으신 이래 저는 30년 넘게 이 질문을 머릿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교육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라 들리지 않습니까? 교육이 교육이지 뭐. 그런데 저는 교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곧 앞서 이야기했던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이 일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기능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잘 기능하는 수단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기능,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도록 하는 기제’로서 개념입니다. 전자는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개념화되고, 후자는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개념화됩니다. 두 개념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기에, 둘 사이에 다른 점을 찾기 힘들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람직한’이란 말에 있습니다. 전자의 개념인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통해 개인을 무언가로 만들도록 하는 기제가 교육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인간에게 사회에서 쓸모있을만한 무언가가 되도록 하는게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회의 변화란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기존에 있었던 지식체계,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 가치, 그걸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개인의 변화 정도가 고작 판단할 수 있는 변화의 지점입니다. 어쩌면 하지만 후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도록 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도록 하지만 변화는 개인 수준에 머무는 기능적 수단이 아닙니다. 변화는 개인과 개인을 잇는 연결망,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에 가치가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바람직한’이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문제는 모

든 사람이 바람직하나의 기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함에 대한 기준을 두고 사람들끼리 충돌합니다. 저는 한 사회에서 이런 충돌은, 이런 충돌을 만들어내는 긴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인거죠. 이 충돌 과정에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를 견인해내는 기제가 곧 교육인 겁니다. 좀 더 포괄하자면 이 전체 과정을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후자는 충돌과 긴장, 대립과 대치와 모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교육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은 아주 다릅니다. 바로 발전과 교육이 맺고 있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을 중심으로 다른 활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말이 발전과 관련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교육을 동등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개념 즉 이론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죠. 여러 분야에서 교육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교육과 개발이 맺고 있는 관계는 상당히 다양하며 하나로 명확히 개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육은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도구적인 혹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evelopm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발전에 종속되어 있을 때 교육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이루어 하려는 목표와 발전이 지향하는 이념에 교육의 목표와 지향이 그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신학과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에 교육은 신 중심의 사회와 이상향을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구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어쩌면 유일한 목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론다고 할 때 찾아내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교육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하게 되죠. 그러나 발전과 교육은 그것 이외에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습니다. 교육과 발전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고 서로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 교육과 발전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차집합에 해당되는, 즉 발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영역이 존재하고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영역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의도된 방식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발전의 관계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등장한다는 것은 교육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 속에서는 교육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저희가 지향하는 발전 개념과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따라서 교육의 고유한 어떤 영역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할 때, 교육은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발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의 고유한 가치와 영역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교육은 발전과 일부 관련돼 있을 뿐 교육은 발전과 관련돼 있어야만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개별적인 발전이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발전보다 강조되면서, 사회문화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인 발전에 집중합니다. 발전의 패러다임에서 경제적 발전이 아닌 경우 교육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SDGs에서의 교육 분야 목표들은 이렇게 발전과 교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3. 양질의 교육,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 도대체 양질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이란 뭘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질, 즉, 양질의 교육을 결정하는 차원은 여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학습 환경과 학습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유니세프에서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혹은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할 때 핵심적인 화두가 학습친화적인 환경의 제공입니다. 최근 공간을 재구성하고 생태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으로써, 학생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하고 생태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평가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육과정은 영어로 process가 아닌 curriculum입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왜 그렇게 정하는지,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된 내용을 어떻게 다시 교육 내용과 방법에 피드백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평가에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시를 많이 뽑을 건가요? 아니면 정시를 많이 뽑을 건가요?”, “수능을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이런 화두가 교육과정이나 평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교육과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사입니다. 제가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사실 ‘좋은’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한 표현입니다. 즉, 어떤 기준으로 좋은 교사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높은 학생이 많은 학급의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좋은 교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이 교사교육 기관인데 교대나 사대, 교사 교육 기관과 관련된 영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비대해지고 교육청에 그 많은 행정 직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직원의 행정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없다면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제 형식 교육이든 비형식 교육이든 공적인 차원의 예산과 공적인 체계의 활동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는 관심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 지원과 다양한 자원 활동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훨씬 더 큰 이념형이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수월성을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런 모든 방식이 존중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화입니다. 흔히 ‘교육열’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단지 교육열이라는 말로 치환이 될 수 없는 한 사회가 가진 교육을 향한 교육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 양질의 교육은 이렇게 이야기한 많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학습친화적인 환경, 훌륭한 교사, 지역사회의 지원, 효율적인 행정체제, 교육을 옹호하는 가치체계, 교육 과정 및 높은 학업 성취도.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질의 교육이 아닌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더욱이 이 수준과 개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심지어 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정치 지형은 다른 기준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두고 그렇게 많은 불만과 또 불충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국제사회의 개발 의제, 특히 교육은 단순한 교육 체제의 접근성을 넘어서서 학생 개인의 성장 발달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각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사실 첫 번째,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매달려 왔었습니다. 이러한 물질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혹은 해왔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물질적인 제공은 무언가 전달해주면 그것이 곧 교육의 질로 바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래서 성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은 혹은 그 결과를 우리가 교육적 성취로 바로 이어서 표출할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전제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에서 시간성은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무상원조든 유상원조든 교육과 관련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협력적 지원 이후 1년, 2년 길어야 3년 이후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지원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요구하고 성과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시간성'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교육으로서의 발전 패러다임을 위해

앞서 교육이 발전과 맺고 있는 관계가 교육이 발전 안에 식민화·종속화돼 있는 과정이라든가 발전과 교육이 관계돼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육은 발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전은 하나의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 저는 교육으로서의 발전 즉, 발전은 곧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발전, 특정한 가치와 특정한 어떤 이념형을 가지고 있는 발전의 패러다임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대립하고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이걸 이어주고 대화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 논의하도록 어떤 틀이 주어지고, 그것이 바뀌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발전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발전과 발전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의 대화와 대립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작동하는 기제 또한 교육입니다.

아마 발전을 그 자체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교육이라고 설명한 것이 발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발전을 곧 교육이라고 개념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전과 교육을 관련 짓는 방식입니다. 여러 영역의 연구하시는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발전이라는 말은 명사 그 자체로 읽히고 해석됩니다. '발전'이라는 말과 '발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명사는 그 자체로 수사적입니다. 즉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명사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손과 발에, 그리고 살갓을 통해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바뀌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칭하는 말로 무유형의 형상을 일컫는 명사도 가치를 다루는 형용사도 정도를 다루는 부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개념으로 명사를 쓴다고 할 때 왜 그 말을 쓰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사는 곧 동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발전은 명사로 지칭된 개념이지만 교육은 발전이 포함하는 가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토대이자 견인차이며, 힘, 갈등, 긴장, 마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합니다. 동사로 쓰이는 말 속에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따라서 교육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교육은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육 개발은 학교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회 확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SDGs에서 볼 수 있듯, 발전에서의 교육은 평생 학습자로서의 개인과 사회 발전 변형을 위한 주요한 주체 공동체의 조직 학습을 일컫는 개념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발전의 주요 동사적 개념인 지속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해주는 개념이자 실천 원리가 됩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변화를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일부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일부는 변화를 반대합니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당신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확산』(로저스, 1995)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수사로서의 개혁과 확산, 개혁과 혁신 그리고 발전이라는 말 속에서 이를 실현하는 힘으로서의 교육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속에서 발전이 교육과 관련되고 있는 방식은 사실 발전을 교육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함을 강조합니다. 교육이 작동하고 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을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회 시스템과 혹은 상황들을 어찌면 계속 재생산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발전에서 교육은 명사이자 동사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 됩니다.

교육은 지속 가능성에 관여하는 일입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동사를 이루는 일 그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지속가능성에 관여하는 것이자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는 이론적인 실천적인 활동으로 곧 발전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 교육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소개

유 성 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저자 유성상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학부, 석사)를 졸업하고 UCLA에서 교육학(국제비교교육)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부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현재 KOICA 자문위원(교육분야)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